

# '성숙을 넘어 도약의 길로'

## 출협 50주년 행사 계획 다채... 내실 다지는 계기로

47년 3월 15일 광복직후의 혼란기에 '조선출판문화협회' (초대회장 김창집)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올 한해를 '성숙을 넘어 도약의 길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해로 설정하고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출협 50주년 기념 행사의 시발은 지난 3월 15일 있었던 기념식.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책,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출판계 안팎의 관계자 3백여명이 참석, 출협의 50회 생일을 축하했다.

기념식과 축하연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나춘호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거듭되는 사회변동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오늘의 출판문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출판인 공동의 노력 덕분"이라고 치하하고 "출판의 영역을 확대하고 출판산업의 위상을 재정립하며, 건전한 출판풍토 조성과 함께 유통문제·세제문제 등의 제도와 체제 개선을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 기념엽서·심벌·로고 등 제작

이날 행사에서는 역대 출협회장인 변우경(재임 61~62년), 정진숙(63~64, 66~73, 79년), 한만년(74~78, 80년), 임인규(84~87

반세기 역사를 회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모색하기 위한 출협의

계획은 크게 세갈래로 나뉜다.

《출협 50년사》의 발간,

세미나를 통한

21세기 비전의 제시,

'책방 가는 날' 등의 지정으로

지속적 캠페인을 벌인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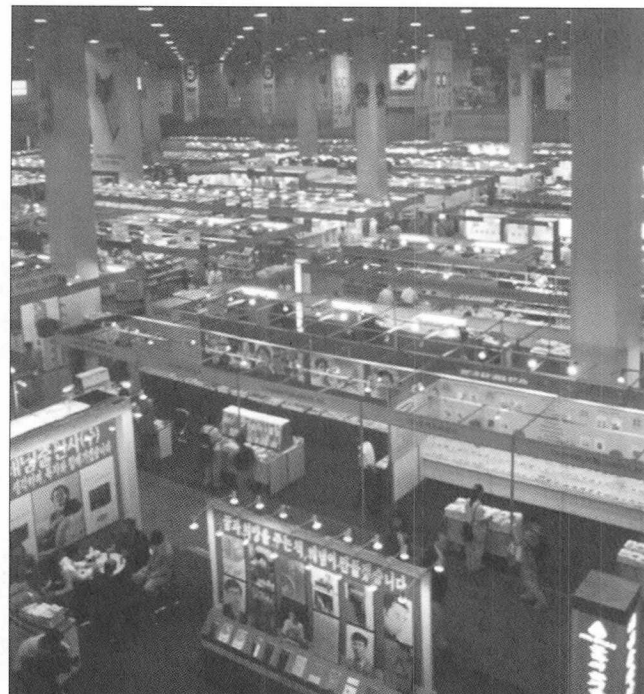
계획이다.

년, 권병일(88~91년), 김낙준(92~95년)씨 등 11명이 공로패를 받았다. 공로패를 수여 받은 역대 회장들은 '기념품'이라도 마련하겠다는 출협측의 제안을 사절, 출판계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공연한 낭비는 줄이자고 했다는 후문인데, 원로들의 출판계에 대한 애정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세종홀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2부 축하연 행사에서는 '시루떡 자르기' '축하 창(唱)' '축시 낭송'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베풀어져 잔치 분위기를 돋우었다.

반세기의 역사를 회고하고 현재를 점검하

올해의 서울국제도서전은 50주년 특별기획전으로 꾸밀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국제도서전.



며 앞으로 나아갈 바를 모색하기 위해 출협이 계획하고 있는 행사는 크게 세 갈래다.

첫째가 출판협회의 5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이를 이끌어온 분들에 대한 업적을 제대로 평가하는 일. 이를 위해 출협은 최덕고(창조사)·전병식(문예출판사)·이경훈(보성사)씨 등을 추진 자문위원으로 '대한출판문화협회 50년사'를 발간한다. 기왕에 나와 있는 《출협 40년사》에서 누락된 내용을 대폭 보완하고 이후 10년간의 역사를 새롭게 기술하는 한편 인명록 및 각종 통계자료도 수록, 자료로서의 가치를 높일 예정이다.

또 50주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출협은 이미 '책, 우리의 미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심벌 및 로고를 제작, 다양하게 활용하는 한편, 기념 광고엽서를 30만장 발행했다. 전국 어느 우체국에서나 출협 창립 50주년 심벌 마크가 찍힌 우편엽서를 살 수 있다.

한편, 반세기 동안 출판문화의 창달과 업계 발전에 헌신한 출판계 안팎의 인사를 선정, 표창한다는 계획도 있다. 역대 회장단 및 현 집행진을 중심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 수상자를 선정할 방침인데 시상식은 오는 10월 11일 '책의 날'에 있을 예정이다.

### 표지

## 숲과 더불어 살아가며 '숲과 문화연구회' 꾸리는 전영우 교수



국민대 산림자원학과 전영우 교수(47)에게 숲을 찾는 일은 언제나 즐겁다. 생명의 탄생지이자 문명의 근원지인 숲은 찾을 때마다 정신과 신체에 공명을 일으킨다. 하지만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숲은 점차 사라져가고, 사람들에게도 잊혀지고 있다. 92년 1월 전영우 교수가 박봉우(강원대 녹지조경학과)·이천용(임업연구원)·임주훈(임업연구원)씨와 함께 '숲과 문화 연구회'를 결성한 것은 이렇듯 잊혀져가는 숲의 인류 문화학적인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다.

'숲과 나무 연구회'는 나무와 숲, 인간과 숲, 환경과 숲, 그리고 문화와 숲에 대한 생각을 주고받는 모임이다. 전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 숲에 대한 새로운 인식, 변화하는

숲의 가치를 찾는 일에 열중한다. 모임에서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숲과 문화》에 숲과 환경에 관한 논문, 나무나 숲과 관련이 있는 동화, 세계 각지의 숲이나 나무를 소개한다.

대중행사로 기획한 '자녀와 함께 숲 찾아가기' (하나은행 공동주최)나 '아름다운 숲 찾아가기'에는 특히 일반인들의 호응이 높아 흐뭇하다.

최근에는 《숲과 문화》에 발표한 내용과 그간의 연구성과를 모아 《산림문화론》(국민대 출판부)을 펴냈다. 이 책에서 전영우 교수는 나무나 숲이 한국인의 정서나 정신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한다. 직접 찍은 표지사진은 우리나라 숲의 주수종인 소나무의 묘목. — 이현주 기자

### '책방 가는 날' 정기행사로

50주년 기념 사업의 두번째 갈래는 21세기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일. 이를 위해 출협은 오는 5월 16일 '21세기 출판산업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첫 세미나를 여는 것을 필두로 올해 안에 모두 3차례의 세미나를 개최, 한국 출판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출판계 안팎의 지혜와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기념 행사 가운데 일반인들의 주목을 끌 만한 것은 출협이 '국민과 함께 하는 책문화 형성'을 목표로 기획하고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 '가족과 함께 책방가는 날'은 서점과 출판사들이 연계하고 언론의 협조를 얻어 전국적인 행사로 이끈다는 계획이어서 기대를 갖게 한다.

'책의 날'인 10월 11일을 기점으로 매달 특정 주말을 '책방 가는 날'로 지정해 일회

# 창 밖의 풍경

허창성

평화출판사 대표 · 한국출판인산악회 회장

내 책상 앞벽에 붙인 그림엽서 <화실 밖의 풍경>은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책 만들기에서부터 발송과 수금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무실역행의 모범을 보였던 한 선배님의 집무실 창 밖 남산 숲이 머리 속에 각인돼 있다.

내 책상 앞벽에는 그림엽서 한장이 붙어 있다. 야콥 알트(Jacob Alt, Austria, 1836)가 150년 전의 비엔나 하늘과 산과 나무숲과 건물의 가까운 풍경. 중간 풍경. 먼 풍경을 은근하게 그린 <화실 밖의 풍경>이다.

그 그림엽서를 바라보면 옛 추억이 떠오르고 머리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게 된다.

30여년 전에 남산동 고개마루에 자리잡은 '남산당'을 방문했을 때 돌아가신 권기주 사장님은 검은테 안경을 낀 건장한 풍채와 정직한 신념을 읽게 하는 모습이었다. 집무실은 한평 남짓하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방에서 창 밖으로 딱 차서 들어오는 남산의 숲과 풍경은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그 인상은 나의 머리 속에 각인되어 언젠가는 나도 전망이 좋은 그런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를 심게 되었다.

그림엽서의 <화실 밖의 풍경>과 선배님의 집무실 창 밖의 남산 풍경 인상이 교차하는 상념에 빠져들어 있는 내가 지금 앉은 자리가 30년전에 그리던 비슷한 장소임을 우연이 필연임을 증명하더라도 하는 것일까?

선배님은 몸소 글자 한 자 한 자를 다듬고 행간을 살피다가 피곤한 눈을 쉬게 하느라 창 밖의 남산을 바라보셨을 것이고, 혼란스런 출판유통의 미래를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설계하셨으리라 상상이 간다.

그는 책 만들기의 시작에서 발송·영업·수금에 이르기까지 쉽없이 매사에 철저하시고 무실역행의 모범을 보이셨고, 가정에서는 자식들에게 교정을 보게 하여 오자 한 자를 발견할 때마다 금액을 정해 용채를 벌어서 쓰게 할 정도로 철저하게 근면과 검약을 가르치셨다고 한다.

그는 50년대의 혼란기에 한국출판협동조합을 창립하고 그 탄탄한 조직을 꾸리고 근



허창성 사장.

검 절약의 정신을 심어 오늘의 터전을 마련하게 한 근간이었다.

사무실 창 밖의 경복궁 풍경은 비엔나나 남산의 풍경을 합친 경치라고나 할까. 우뚝 선 종합청사. 길게 뻗은 경복궁 숲과 돌담. 가로변 은행나무 숲. 자동차의 행렬. 화려한 불빛이 춤추는 야경. 드물게 지나가는 행인들의 각양각색의 모습들.

당신이 화사한 꽃을 피우면 나절로 멋진 봄을 노래합니다/당신이 푸르른 숲을 만들면 나에게 산기운이 돕니다/당신이 단풍을 입으면 나는 삼락에 젖어 돕니다/당신이 흰 눈에 덮이면 나는 흰 고독을 느낍니다/당신이 밤을 맞으면 나는 검은 고독을 맛봅니다/당신이 한 몸통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사시사철 창 밖의 변화를 느끼며 자신에게 이르던 마음의 소리다.

나무가 준 1천년의 고마움, 당신은 출판의 도구.

나무는 인류의 자산, 뉴욕 맨해튼을 나무 전쟁을 통해 얻은 미국.

나무가 없는 풍경을 생각할 수가 있는가?

그림엽서 <화실 밖의 풍경>을 좋아하는 것도, 창 밖의 풍경을 좋아하는 것도 자연을 아름답게 보는 눈, 아름답게 생각하는 마음의 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



지난 3월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진 기념행사 중 '시루떡 자르기'의 축하연.

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 사회 각계의 지도급 인사로 조직위원회를 구성, 이들의 가족이 먼저 책방나들이를 하게 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여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한편 책문화에 활력을 주겠다는 것이 출협의 기대다.

아울러 출판협회는 서울국제도서전 기간 중인 오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한국종합전시장 태평양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으로 '한국출판 50년사 자료전(1945~1996)'을 연다. <출판연감> <출판문화> 등 출협이 발간해온 책이나 자료집 외에도 각종 세미나 자료, 관련단체들이 제공한 각종 자료 등을 전시, 지나온 발자취와 한국출판의 성장과정을 조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50주년을 기해 출협이 계획하고 있는 행사들은 대체로 대형 이벤트보다는 기왕에 해오던 행사에 50주년의 의미를 부가한 것이 많다. "50주년을 출판 도약의 계기로 삼자는 데는 회원 모두가 동의할 하고 있지만 불황의 여파로 출판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외양이 화려한 행사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행사의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 출협 기획사업부 고흥식 차장의 설명이다.

## “책문화에 활력 주는 계기로 활용해야”

출판협회의 50주년을 함께 맞이한 출판인들은 짧은 시기에 우리 출판산업이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데는 협회의 공로가 크다고 치하하고, 50주년을 축하하는 표정이다.

많은 출판인들은 출판협회의 50주년을 새로운 시작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영표 출판문화학회 회장은 “차츰 어려워져가는 우리 출판현실을 질적인 도약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구심점으로 출협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한다.

창립 당시를 되돌아키게 돼 감개가 무량하다고 밝힌 정진숙 을유문화사 사장은 “50년의 연륜을 지닌 문화단체가 드물 것”이라고 출협의 50주년이 지나는 의의를 평가하면서 협회가 출판업계의 명실상부한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현재 출판협회 회원이 등록 출판사의 1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고 회원사들의 참여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밖에도 업계의 요구를 제때에 수용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역동성, 시대의 변화를 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의 전문화 등이 협회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 박남정 기자